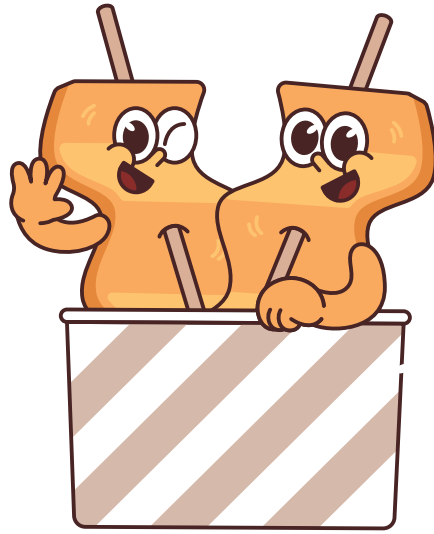


목포시, 지역 대표 어묵 브랜드 개발 나선다

어묵 세계화 육성 전략사업 보고회 차별화 전략 수립·시장공략 논의 역사·문화·관광·지역 특성 집중 지역 어묵 인지도 향상 경쟁력 제고

목포시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어묵 브랜드 개발에 나섰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 전략사업'의 도약을 위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목포어묵 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목포



어묵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수립 △마케팅 및 시장공략 방안 △용역의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한 목포 어묵 브랜드 개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 전략사업은 지난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목포시는 목포의 역사·문화·관광·지역 특성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목포만의 특색있는 어묵 로컬 브랜드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해 어묵시장에서 목포어묵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어묵을 생산하기 위한 목포어묵 해협(HACCP) 가공공장은 대양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이며 지난 7월 착공해 내년2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가공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장은 "목포는 서남권의 수산물 집산지로서 고품질 어묵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브랜드 개발을 통해 목포 어묵이 사랑받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자리잡아 확실한 미래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 공연 목포문화예술회관, 26일 오후3시

목포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 오는 28일 오후 3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를 공연한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개그맨 안상태, 정승환, 송영길, 김자미, 유정은, 김도후, 전소이 등 탄탄한 실력의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 대상은 8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1층 2만원, 2층 1만원으로 지정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람을 위해 예매 시 목포, 신안, 무안 주민들은 50%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목포시 문예시설 관리사무소 회관공연팀에서 가능하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신흥동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목포시 신흥동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2일 신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행정복지센터, 목포신협 등 50여명이 참여해 부녀회원들이 직접 만든 양념으로 김치 200포기를 담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조순희 새마을부녀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김장을 우리 동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신흥동 새마을부녀회는 연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12일 목포시 신흥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신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 김장 김치를 만들고 있다. 이날 부녀회원들이 만든 김치 200포기는 관내 소외이웃에 전달됐다. **목포시 제공**

무안군, 관내 독거노인 등 '사랑의 떨감 나누기' 행사

무안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 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떨감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된 떨감은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 중 목재로써 활용 가치가 없는 나무를 수집한 것이다. 떨감은 30여가구에 가구당 1톤 차량 1대분의 양을 직접 배부할 계획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승용 무안군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사랑의 떨감 나누기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이 조금이나마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신안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유대회... 미래 방향 모색 마련

신안군은 18일 신안군가족센터에서 14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안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유공자 표창, 활동 영상 시청,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군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읍면별 특화사업이 선정됐으며, 서로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확대와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신안군 협의체 공공위원장 김대인 부군수는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희망을 찾아 드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안을 같이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5개 지구 지적재조사 23일까지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해남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3일까지 산이면 금호지구를 시작으로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해남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구는 계곡·당산·반계·성진, 산이·금호, 화원·월호지구 등 총 5개 지구 2378필지(137만696㎡)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별 선정 배경 및 목적,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주요 내용, 사업 절차 및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받아 전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경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남=전우 기자

목포시, 연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이벤트

30일까지 무작위 추첨 30명

목포시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2024년 연말 고향사랑기부'는 목포랑'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중 목포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30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이 밖에도 평소 기부자들의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 답례품 개발에 힘써 왔다. 현재 홍어, 김, 낙지를 비롯한 지역 특산품과 함께 지역상품권, 관광상품 이용권을 포함한 90여종의 다채로운 답례품을

제공 중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다양한 답례품, 추가 경품까지 더욱 풍성한 혜택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10만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암군, 지역농가 기업 상생 마늘 계약재배 순항

내년 4월 도시 판매

영암군은 18일 '마늘 계약재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종면 갈곡리 마늘밭을 찾아 양호한 생육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영암군의 농정혁신 정책 중 하나인 마늘 계약재배 시범사업은 영암기업과 농가의 상생 모델 구축을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영암군은 지역농산물 품질 안정, 예측 가능한 농가 수익 확보, 고품질 기업 원료 확보 등을 달성한다는 목

표다.

군은 지난 7월 농가, 기업이 만난 간담회에서 농가의 안정 수익 보장,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계약재배 방식을 제안했다.

당시 영암읍특화농공단지 채소류 도매업체 '새아침농산'은 농특산물 계약재배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논의를 거쳐 3개 농가가 참여하는 4.9ha 규모의 마늘 계약재배를 결정했다.

계약재배 마늘은 지난 10월 하순 파종됐으며 영암군은 이번 생육상황 점검 이외에도 계약재배 농가 모니터링 등을 거

쳐 내년 4월 수확해 업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계약재배 모델을 성공 정착시키고 양파·생강 등 다른 농산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영암의 농특산물로 농가와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 창출 기회로 삼겠다"며 "무엇보다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의 마늘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와 함께 꾸준히 품질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